

청소년 발명기자단의 현장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雪松의 전경

충남기계공고의 교정에 들어서면 교목인 설송(히말라야시다)을 호위병으로 하여 새로 핀 벚꽃과 여러 수목들이 뿜어내는 충청연색에 생명의 숨결마저 느껴진다. 마치 부드럽게 스쳐지나가는 봄바람이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대지를 깨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雪松의 정신을 이은 발명꿈나무의 산실,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

한국의 6~70년대의 산업화의 전초기지 공업고등학교.

대통령령으로 설치, 인가된 각 지역의 공업고등학교는 그 시대 산업사회의 동력원이요, 한 시대를 선도했던 수많은 인재들의 산실이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생각도 바뀐다고 했던가. 지금은 공업부문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무작정 공고 재학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편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려고 '노력'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무관심과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정을 발휘하는 학교가 있다. 첨단 기능 인력과 발명 및 창업인재를 발굴해내려는 학교—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바로 그곳이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는 올해 42년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뒤에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와 땀의 결정체가 있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동안 주입식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먼저, 수업 전 학생들

에게 '마인드맵'이라는 기법으로 미리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생들 간의 평가를 각자 스스로 해보도록 한다. 방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까지 이어져 각 동아리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런 노력에 힘을 입었는지 2005년 40회 발명의 날에는 국무총리상인 발명유공단체 표창을 받았고, 2006년 특허청 우수발명 교실로 선정되었다. 게다가 창업발명동아리 '하랑', 로봇동아리 'EM' 학생들의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그리고 발명반 학생들은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탐구대회 등 숱한 과학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게다가 본교는 매년 방학기간마다 본교 학생들과 대전 지역 학생과 초등학교 어



서원석
충남기계공업고·발명기자



머니들을 대상으로 발명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에 맞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수한 커리큘럼으로 지금까지 배출한 학생만도 수백 명에 이른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캠프에 참가한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못지않은 열정을 과시하고, 아이들이 각종 발명품을 구상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만족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과학의 달 4월로 가보자. 본교 결연과학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과학하는 자세'를 갖게 해주고, 발명의 달 5월부터는 학기말까지 격주로 발명가 초청강연 및 비즈쿨 행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발명공작수업은 '1인 1특허 갖기'라는 교육이념 아래, 본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대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기초반부터 특별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의 오랜 경력과 기술을 가진 선생님들의 지도로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품 구상에서부터 제작,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선진화된 공작기계 등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켜 이들을 미래의 경제 역군으로 양성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경영인이나 대기업 간부만이 성공적인 인간형 모델로 제시되곤 하는데 사실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창의적인 발상과 기술을 통해 지금까지도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형 모델'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